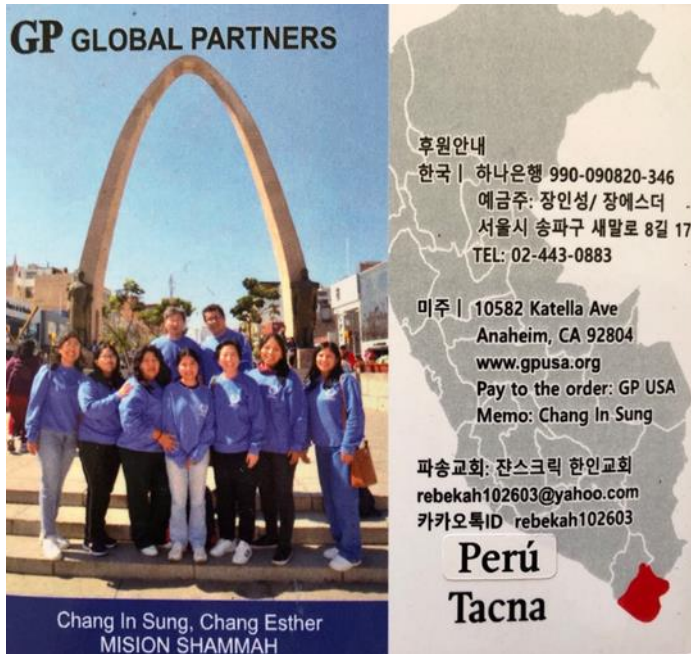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4 월의 선교편지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 24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위가 많이
가라앉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네요. 이곳 딱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나는
낮에는 찜하고 해가 뜹니다. 사막이라 계절의 변화가 많지 않고 비가 오질 않습니다.

이 좁은 도시를 뱅돌러있는 모래산을 늘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번씩 사역을
위해 바닷가와 농촌을 가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빌라-빌라사역 (어촌)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2 월에 도서관을
오픈했습니다. 물 문제로 도서실 오픈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1 월에 주민들이 모여 직접
파이프로 물줄기를 연결하였습니다.

빌라빌라는 하루에 2 시간 물이 공급되는데

그때 물을 받아 났다가 반나절을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 3 일(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도서관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요일에 사랑방 처럼 마을 주민들을 위해 뜨게질교실을 하고, 금요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과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미션 삼마와 오후에는 책 읽기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그저 망막한 어두운 이땅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성가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네요. 이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몇달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미국에서 이 곳에 보내시고 이 많은 헌금과 사람들을 보내시어 이땅을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빈장소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걸어갔다가 도서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빌라빌라의 작은 어린아이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조금씩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삼마(농촌): 미션 삼마에 늘 늦게 오는 아이들이 3 명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집이 아주 멀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비포장 언덕을 자전거로 (20 분 정도) 학교에 다니는데, 수요일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미션 삼마에 참석하려고 열심히 오지만 늘 시간을 맞추수가 없는 사정을 듣고 우리가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 꼬마들을 데려다주고 오면 차는 완전히 흙먼지로 뒤집어 씌워지지만 미션 삼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 마음은 기쁨에 충만해지네요.

늘 느끼는 것은 빌라빌라와 삼마에 갔다가 돌아 올때면 주님이 웃으시면서 “오늘도 수고 했다” 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적은 숫자의 아아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큼니다.

감사하게 작년부터 기도하던 현지인 엘리사리오 목사님이 이번달에 삼마에 작은 땅을 구입하시어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저희 미션 삼마도 그 교회로 옮겨서 미션 삼마에 나오는 아이들의 가정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 드리고 자리가 잡히면 저희는 옆동네 INCLAN 이라는 동네로 또 주님의 깃발을 꽂으러 가려고 합니다.



소년원: 아이들이 방학동안 (1 월 – 3 월 중순까지) 열심히 성경필사를 해서 10 명정도의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메뉴큐 교실도 열심히 하네요. 일주일에 1 번 2 시간 밖에 연습을 할수 없어서 그리 많은 진도를 낼수는 없으나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이쁩니다.



사회복지 센타

여름 방학동안(1 월부터 3 월까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성경공부를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어르신들과 중고등학생 10 명,
오후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0 명 정도의 아이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 월 첫주에는 큰 버스를 빌려 어르신들과 고등학생들을 빌라빌라 바닷가에 피크닉을 가서
도서실에서 점심을 드시고 메뉴큐도 발라드리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인가
데려가지 안으면 갈수 없는 분들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네요. 우리의 작은 수고가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6 년 만에 바다를 보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더 갖으므로 행복해지지 않고 나의 것을 나눌때 참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은 딱나를 사랑하시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금과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루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 / 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Vila Vila 어촌 도서관에서 새로 시작한 금요일 노인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줄 수 있도록
2. 말씀 공부를 시작한 Rinaldo 와 Fiorela 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Mision Shammah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3. 소년원 주일예배를 통해 소년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4. 막내 베키의 5 월에 있을 갑상선유두암 수술을 위한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